

## 賀 序

天鳳 石琮顯 教授의 화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옛 사람들은 세월은 유수같다고 표현하더니 요즘 사람들은 ‘인생은 60부터’라고들 한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감자를 맞이한다는 것은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임에는 틀림없다. 또 IMF 사태 이후에서 비롯하며 특히 지난 해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하여 우리 사회는 급격한 세대교체로 인하여 나이 든다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퇴출의 첫 번째 요건처럼 치부하는 풍조가 도처에서 만연되고 있다. 그러나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룩되지 않았듯이 학문의 세계에서만은 연륜과 장구한 세월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 오랜 세월 기간 석종현 교수는 오로지 한국 행정법의 한 분야만을 깊게 천착해 왔다.

그는 일찍이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뒤 학군단 장교로서 군복무를 필한 후 서독 유학을 준비하였다. 외국 유학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던 당시로서 그의 도전과 용기는 대단한 것이라고 하겠다.

때는 한국 정부가 유신 쿠데타를 감행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새 헌법을 제정하여 국민투표에 붙이고 정치활동을 정지시키는 등 국내외의 정세는 걸잡을 수 없는 혼란과 독재의 길로 치닫고 있던 1972년 겨울이었다. 그는 조국의 미래가 암담하고 자신의 앞날도 불투명한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서독행 비행기에 올랐다. 뮌헨 근교의 Goethe Institut와 루르대학에서 새로이 독일어를 연수하는 한편 독일 청소년들에게는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1975년 그는 슈파이어대

학(행정대학원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현재는 국립슈파이어대학)에 입학하여 Willi Blümel 교수의 지도 아래 연방공간규제법상의 공간규제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로 1978년 10월 행정과학박사(의역하면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단국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학문에 대한 그의 열의는 학자로서의 지위와 명성을 갖춘 이후에도 더욱 타올라서 1990년 다시 튀빙겐 대학교에 「한국에 있어서 독일 행정법의 수용」(지도교수 Günter Püttner)이란 법학박사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두 번째의 학위를 취득하였다.

행정법학자로서 석교수는 주로 독일의 최신 행정법이론을 소개하는 한편 한국의 그것과 비교 연구하여 우리의 것으로 적용하고 체계화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그 결실로서 1986년 『일반행정법론』(상)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당시의 국내 행정법 교과서들이 아직도 일본 교과서나 연구업적에 의존하여 서술하고 있던 것을 완전히 한국 문헌과 독일 자료에 토대를 두고 저술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행정법학의 독자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바야흐로 일본으로부터의 진정한 학문적 해방을 이룩한 동시에 지적 콤플렉스를 완전히 불식한 것으로 저자인 석종현 교수의 승리인 동시에 우리 학계의 숙원을 풀은 것이다.

석교수의 학자로서의 능력과 업적은 1994년 8월에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운영을 들 수 있다. 이 학회는 단순히 토지문제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계획 전반에 걸치는 공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로서 매년 여러 차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책자를 펴내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법 전공의 학자들까지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학회로 확대되었다.

또한 2001~2002년도에는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의 회장으로서 여러

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한국공법학회의 발자취』 신판을 발간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외적으로도 석교수는 여의도연구소의 소장으로서 활약하였다. 이 연구소는 한나라당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책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직접 정책을 건의하기도 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2년 10월에는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를 설립하여 시사적인 법적 현안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입법정책에 반영되도록 법제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처럼 석교수는 이론적·학술적으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을 실제에 적용하고 나아가 정책결정에까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점에서 그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보기 드문 사색하는 행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부드러운 인품과 인격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를 돕고 조직과 단체를 이끌어나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만들고 있다. 한편 그의 내면은 강인한 정신과 불굴의 투지 그리고 학문과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차 있다. 이를 일러 옛 사람들은 외유내강이라고 하였던가.

이제 그의 화갑을 맞이하여 지나간 일들을 몇 자 적어 두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1982년 초 필자는 『독일헌법학설사』라는 책자를 기획하고 아무 일면식도 없는 석교수께 「게르버-라반트의 실증주의」에 대해서 잘된 독일 논문 한편을 번역하거나 집필을 의뢰한 일이 있다. 당시 그는 본 대학에 방문교수로서 체류 중이었는데 바쁜 시간을 쪼개어 자신이 집필한 원고를 보내왔다. 이 논문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읽어도 그의 예지와 성실함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헌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초기 공법학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자세하게 쓴 국내 문헌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1995년 9월 슈파이어대학에서는 Rainer Pitschas 교수와 석종현 교수의 노력으로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헌법과 행정법의 발전」이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 일이 있다. 여기에는 고려대학교의 김남진 교수, 서울시립대학교의 박수혁 교수 그리고 필자도 참여하여 보고를 한 일이 있다. 한국의 공법학에 관하여 특히 국제적으로 공동 연구를 하거나 발표한 예는 그리 흔하지 않다. 이 대회에서 발표한 보고들은 1998년 Rainer Pitschas (Hrsg.), “Entwicklungen des Staats- und Verwaltungsrechts in Südkorea und Deutschland”(Berlin: Duncker & Humblot)이란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도 하였다.

이제 한국의 공법학은 독일이나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입하여 무조건 그곳의 이론이나 학설만을 소개하거나 모방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우리의 것으로 적용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때이다. 또 나아가 우리의 시행착오나 성공사례의 경험을 제3국에 전수하거나 서로의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글로벌 시대의 한국 법학의 사명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국 공법학의 초석을 놓는데 크게 기여한 천봉 석종현 교수의 화갑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그의 학문에 대한 정열과 업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믿으며 만수무강하기를 빈다.

2003년 9월 6일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고문 김 효 전

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한국공법학회의 발자취』 신판을 발간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외적으로도 석교수는 여의도연구소의 소장으로서 활약하였다. 이 연구소는 한나라당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책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직접 정책을 건의하기도 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2년 10월에는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를 설립하여 시적인 법적 현안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입법정책에 반영되도록 법제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처럼 석교수는 이론적·학술적으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을 실제에 적용하고 나아가 정책결정에까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점에서 그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보기 드문 사색하는 행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부드러운 인품과 인격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를 돕고 조직과 단체를 이끌어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만들고 있다. 한편 그의 내면은 강인한 정신과 불굴의 투지 그리고 학문과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차 있다. 이를 일러 옛 사람들은 외유내강이라고 하였던가.

이제 그의 화갑을 맞이하여 지나간 일들을 몇 자 적어 두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1982년 초 필자는 『독일헌법학설사』라는 책자를 기획하고 아무 일면식도 없는 석교수께 「게르버-라반트의 실증주의」에 대해서 잘된 독일 논문 한편을 번역하거나 집필을 의뢰한 일이 있다. 당시 그는 본 대학에 방문교수로서 체류 중이었는데 바쁜 시간을 쪼개어 자신이 집필한 원고를 보내왔다. 이 논문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읽어도 그의 예지와 성실함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헌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초기 공법학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자세하게 쓴 국내 문헌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1995년 9월 슈파이어대학에서는 Rainer Pitschas 교수와 석종현 교수의 노력으로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헌법과 행정법의 발전」이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 일이 있다. 여기에는 고려대학교의 김남진 교수, 서울시립대학교의 박수혁 교수 그리고 필자도 참여하여 보고를 한 일이 있다. 한국의 공법학에 관하여 특히 국제적으로 공동 연구를 하거나 발표한 예는 그리 흔하지 않다. 이 대회에서 발표한 보고들은 1998년 Rainer Pitschas (Hrsg.), "Entwicklungen des Staats- und Verwaltungsrechts in Südkorea und Deutschland"(Berlin: Duncker & Humblot)이란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도 하였다.

이제 한국의 공법학은 독일이나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입하여 무조건 그곳의 이론이나 학설만을 소개하거나 모방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우리의 것으로 적용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때이다. 또 나아가 우리의 시행착오나 성공사례의 경험을 제3국에 전수하거나 서로의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글로벌 시대의 한국 법학의 사명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국 공법학의 초석을 놓는데 크게 기여한 천봉 석종현 교수의 화갑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그의 학문에 대한 정열과 업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믿으며 만수무강하기를 빈다.

2003년 9월 6일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고문 김 호 전